

사회

자율형 사립고·공립고 문 열었지만 ...

광주 우수 중학생 유출 심각

올 상위 4% 내 인재 461명 타시·도 특목고로

신설 자율고 검증 안되고 外高 없어 이탈 계속

학업 성적 최상위권 중학생의 타 지역 유출이 급증하면서 5년간 수능 전국 1위를 지켜온 '실력광주'의 명성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에는 우수학생 유출을 막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 등 2개교를 신설했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77명(전체 중학교 졸업생 대비 1.33%)에 지나지 않았던 광주 우수 중학생의 타시·도 유출자 수는 2006년 333명(1.60%), 2007년 346명(1.52%), 2008년 414명(1.74%),

2009년 509명(2.16%)으로 급증했다. 광주는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가 첫 개교한 올해에도 고등학교 진학자 2만1690명 중 2.22%에 이르는 461명의 우수 중학생이 타시·도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학교 재학시 전국 상위 4%내의 성적을 유지했던 학생들로, 고교 진학시 내신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광주의 우수 중학생 역외유출이 심각한 것은 외국어 고 등 우수 인재들이 선호하는 교육 시설이 부족한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광주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어고 없고, 광주 과학고를 제외하고는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 성적 우수 학생들이 선호하는 고교도 전무하다.

더욱이 오는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특목고 3개교가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어서 광주의 우수 중학생 유출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교 재학 당시 전교 5등 이내를 유지해 온 아이들을 올해 타 지역 외국어고로 진학시킨 박모씨는 "아들이 희망하는 외국어고나 자립형 사립고가 광주에는 없어 다른 지역으로 진학시킬 수밖에 없었다"면서 "교육비와 생활비 등 부담은 크지만, 대학진학 등을 고려해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같은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올해 자율형 사립고(송원고)와 자율형 공립고(살일여고) 등

2개교를 개교하고 학생을 모집했지만, 성적 우수 중학생의 타 지역 유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신설학교의 특성상 아직 교육 성과를 가늠하기 어렵고, 교육 방식 등이 검증되지 않은 등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무산됐던 외국어고 설립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광주가 외국어고 없는 상황에서도 수능 전국 1위를 유지해 온 것은 일반계고를 중심으로 구축된 선진 교육 시스템 덕분"이라면서 "다만 아직도 우수 학생들이 특목고를 선호하면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외국어고 설립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개교를 개교하고 학생을 모집했지만, 성적 우수 중학생의 타 지역 유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신설학교의 특성상 아직 교육 성과를 가늠하기 어렵고, 교육 방식 등이 검증되지 않은 등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무산됐던 외국어고 설립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광주가 외국어고 없는 상황에서도 수능 전국 1위를 유지해 온 것은 일반계고를 중심으로 구축된 선진 교육 시스템 덕분"이라면서 "다만 아직도 우수 학생들이 특목고를 선호하면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외국어고 설립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군 F-5 전투기 2대

훈련 중 강원도 추락

조종사 3명 숨진 듯

공군 F-5 전투기 2대가 2일 낮 12시33분께 강원도 평창군 황병산에 추락했다.

공군에 따르면 F-5E와 F-5F 전투기 2대는 낮 12시20분께 전투 기동훈련을 위해 강릉기지를 이륙한지 5분 만에 강릉시 서쪽 20km 상공에서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전투기가 레이더에서 자취를 감추자 공군은 HH-60 구조헬기 2대를 실종지점으로 급파해 수색에 들어가 대관령면 황병산에서 조종사 시신과 전투기 잔해 일부를 찾아냈다.

공군 관계자는 "실종된 F-5기 전투기 조종사의 훼손된 시신 일부와 기체 잔해가 대관령면 선자령 정상 부근에서 발견됐다"며 "F-5E 조종사 1명, F-5F 조종사 1명, 오모 중령 1명"이라고 밝혔다.



과 최모 중위 모두 순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F-5E는 1975년에 미국 노드롭사에서 도입했으며, F-5F는 1984년 국내 조립 생산됐다. F-5 기종은 최대속도 마하 1.6으로, 전장 14.5m·기폭 8m·기고 4m·무게 4천410kg이다. 전투행동반경은 1천km에 이른다.

나원침 (8051) 김장동



주택가 빈집털이 30대 검거

광주북부경찰청은 2일 도심 주택가에서 주인이 외출한 집만을 골라 금품을 털어 이모(37)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자정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추모(여·28)씨의 집에 침입해 시가 13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30회에 걸쳐 2천16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엄마 귀금속 훔쳐 판 못된 10대

친구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10대 청소년과 훔친 물건을 경찰에 매입한 금은방 주인이 나란히 경찰서형.

광주북부경찰청은 2일 박모(15)군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박군이 훔친 귀금속을 산 금은방 주인 유모(여·51)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 1월 24일 정오께 중학교 동창 집에 놀러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다이아몬드 반지 등 시가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뒤 유씨에게 팔았다는 것.

유씨는 경찰에서 "장물인지 몰랐다"며 발뻠했지만 박군의 나이가 어린 점과 600만원 어치 귀금속을 고가 170만원만 주고 매입한 이유를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

돈 되면 동상도 훔친다

화순경찰, 전국돌며 역대 '싸늘이' 절도범 검거

2천만원 짜리 흉상 6도막 내 20만원에 팔기도

고양에 세워진 청동 조형물을 훔치는가 하면 전국을 돌며 역대 건설공구를 '싸늘이'한 3인조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절도 혐의로 화순경찰에 붙잡힌 김모(43)씨는 지난해 1월 오후 4시30분께 진도군 고군면 광장에 세워진 '피에르 란디' 흉상을 훔쳤다.

이 흉상은 지난 1975년 고군면 '신비의 바닷길'을 발견한 피에르 란디 전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기리기 위해 설치됐지만, 김씨에게 그 '현금이 되는' 청동 덩어리에 불과했다. 진도가 고향인 김씨는 어렸을 때부터 이 흉상에 '눈독'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공범 이모(43)씨마저 "관공서 물건에 손대면 안된다"고 말했지만, 돈에 눈이 먼 김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게 70kg의 흉상을 통째로 뽑아낸 김씨는 공사현장에서 슬쩍한 전기톱을 이용해 6개로 분리한 뒤 '청동값' 20만원을 받고 고물상에 팔아치웠다. 진도군은



김모씨 등 절도범 3명이 지난해 1월 훔친 진도군 고군면의 '피에르 란디' 흉상의 도난 전(왼쪽)과 도난 후(오른쪽) 모습.

2002년 2천만원을 들여 이 흉상을 설치했다.

김씨 등은 또 전국의 공사장을 돌며 발전기와 도로 절단기, 용접기 등 건설공구 1억원 어치를 다치는 대로 훔쳐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주범 김씨와 이씨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또다른 공범 김씨와 장물업자 서모(5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84명 검찰에 송치

전교조(전국교직원노조)와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 영등포경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292명 중 284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합원 284명 중 11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170명에게는 정치자금법, 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정당법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민주노동당 당원명부와 당직자 투표 내역을 대조해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가려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수사 과정에서 광주·전남에서는 광주 북구 4명, 서구 2, 동구 1명 등 모두 15명이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정당은 가입하지 않고 정치자금만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을 두고 후원금을 낸 것이 아닌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KTX-산천' 용산~광주·목포 첫 운행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신형 'KTX-산천'이 2일 서울 용산~광주 및 목포구간에 대한 첫 운행에 들어갔다. 'KTX-산천'은 역방향 좌석을 없애고 좌석 간격이 98cm(기존 93cm)로 넓어지게 특징이다.

광주 또 편의점 강도

어제 동구 학동

2일 새벽 5시10분께 동구 학동 A편의점에 20대 괴한이 침입, 여주인 김모(56)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청바지에

등산복 차림을 한 범인은 편의점에 들어오자마자 김씨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편의점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보, 범종전과자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옷차림

은 비슷하나 인상착의와 범행수법이 다른 점으로 미뤄 앞서 일어난 2건의 남구 편의점 강도사건과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17일에는 각각 광주시 남구 봉선동 B편의점과 C편의점에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두 편의점 간 거리는 직선거리로 500m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PEET / MEET / DEET 전문학원

[약학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MDPass **의학원** 출신이 아니라면 합격은 어렵다" 이 한마디를 위해...

<p>심화과정 개강 3월 2일</p> <p>단일명 기술문제 풀이 개강 5월 3일</p> <p>FINAL 마스터문제 풀이 개강 7월 5일</p>	<p>특설1 기초시작반</p> <p>과제물 완성 2010년 8월 시험 대비를 위한 기초 필수과목 이수(100%) EPR 관례에 위치한 선어학술 강사</p> <p>개강: 3월 2일</p>	<p>특설2 기초영어</p> <p>공인영어 TOEFL, TOEIC 고득점 취업을 위한 초·중·고·대 4~4급 기초과정 1~4급-중급과정 중·고·대 4급에 해당하는 강사 반영 8시간, 최대 44시간, 어휘 4400</p> <p>개강: 3월 8일</p>	<p>검정원 최고와 강사원의 박철 출강 강의</p> <p>특별초빙</p> <p>과목: 일반생물학</p> <p>[특별초빙] 생화학, 분자생물학, 전염병, 미생학, 유전학, 교수님을 특별 초빙합니다!</p>
--	--	--	--

MDPass **의학원**

광주 263-5453, 430-2200 전주 255-9119
mdpass.co.kr (광주 북구청 맞은편)